산업통상자원부	**보도참고자료**	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해주시기 바랍니다.

배포일시	2018. 7. 22. (일)	담당부서	미주통상과
담당과장	김장희 과장(044-203-5290)	담 당 자	조진화 사무관(044-203-5651)

자동차 232조 관련 민관합동 총력 대응
- 민관합동 사절단 미국방문 결과 [종합] -

□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을 대표로한 **민관합동 사절단**은 미국 상무부 공청회 계기 7.18.(수) ~ 7.20.(금)간 미국 워싱턴 D.C.를 방문해 **자동차 232조 관련 전방위적인 대외 설득활동(아웃리치)**를 하였다.

※ 민관합동 사절단 구성: (정부)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, 통상차관보, 외교부, 기재부 (민간) 자동차산업협회 회장, 현대차그룹 사장, 무역협회 부회장 등 총 25명

1. 정부의 대미 아웃리치 활동

□ **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**은 **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**(NEC) 래리 커들러(Larry Kudlow) 위원장, 백악관 믹 멀베이니(Mick Mulvaney) 예산국장 등 **미국 백악관의 통상 관련 핵심인사와** 주요 **상·하원의원**(7명)과 **여론주도 두뇌집단(싱크탱크)**를 상대로 한국은 미국의 핵심 안보 동맹국이자 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국이므로 **한국은 자동차 232조 조치 대상이 아니라고** 설명했다.

○ 이러한 논거로서 ①한미 자유무역협정 **개정협상**을 통한 **자동차 분야 미국의 우려 반영***, ②**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동차 관세 상호 0% 적용 등 상호 호혜적 교역여건** 이미 조성** 등을 **집중적으로 전달**하고,

- ③**한국 자동차산업의 미국 투자** 등 미국경제에 대한 기여와, ④한국은 **미국의 핵심 동맹국**임을 강조하였다.

* (개정협상) 안전기준 동등성 인정범위 확대, 픽업트럭 관세철폐기간 20년 연장 등

** (미 관세율) '11년 2.5 → '16년 0%, (韓 관세율) '11년 8 → '12년 4 → '16년 0%
(미국의 대한(對韓) 자동차 수출 증가) '11년 1.3만대 → '17년 5.5만대 (305%↑)

□ 미국 인사들은 이러한 **우리의 입장에 대해 대체로 공감**하였으며, 자동차 232조 조치는 자동차 산업의 **복잡한 국제 공급망**(global supply chain) 감안시 미국 경제 및 고용에도 **부정적인 영향**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.

< 통상교섭본부장의 자동차 232조 관련 대미 아웃리치 활동 내용 >

대상	면담자	일자	소속	특이 사항
정부	❶래리 커들러 (Larry Kudlow)	7.19	국가경제위원회 (NEC) 위원장	
	❷믹 멀베이니 (Mick Mulvaney)	7.20	백악관 예산국장 (OMB Director)	
의회	❶재키 왈러스키 (Jackie Walorski)	7.18	하원, 공화 인디애나	자동차 232조 관련 미 상무부 앞 149인 공동서한 주도(7.18)
	❷캐빈 브래디 (Kevin Brady)	7.18	하원, 공화 텍사스	하원 세입위원장
	❸데이브 라이커트 (Dave Reichert)	7.18	하원, 공화 워싱턴	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위원장
	❹조니 언스트 (Joni Ernst)	7.18	상원, 공화 아이오와	
	❺스티브 데인스 (Steve Daines)	7.19	상원, 공화 몬타나	
	❻리처드 닐 (Richard Neal)	7.19	하원, 민주 메사추세츠	하원 세입위 민주당 간사
	❼데이비드 퍼듀 (David Perdue)	7.19	상원, 공화 조지아	기아자동차 공장 소재 주(州)
씽크탱크	❶클로드 바필드 (Claude Barfield)	7.19	AEI 선임연구원	
	❷제프 스콧 (Jeff Schott)	7.19	PIIE 선임연구원	
	❸조슈아 멜처 (Joshua Meltzer)	7.19	Brookings 선임연구원	
	❹댄 아이캔손 (Dan Ikenson)	7.19	CATO 선임연구원	
	❺트로이 스탄가론 (Troy Stangaron)	7.19	KEI 선임연구원	
	❻마크 마닌 (Mark Manyin)	7.19	CRS(미 의회조사국) 동아시아 연구원	

□ 한편, **강성천 통상차관보**는 기재부,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

상무부와 재무부 차관보를 만나 **자유무역협정(FTA) 체결국인 한국에 대해 232조 조치가 부과되어서는 안 된다**는 점을 강조했다.

2. 민간의 대미(對美) 대외설득활동

□ 민간 부문은 **무역협회(대표: 한진현 부회장), 자동차산업협회(김용근 회장), 현대차 그룹(정진행 사장)**으로 구성한 대외 설득활동을 진행했다.

○ **무역협회**는 **미국 정부 및 여론주도 두뇌집단(싱크탱크)**를 중심으로, **자동차산업협회**는 **자동차 관련 협·단체,** 그리고 **현대차 그룹**은 **조지아·앨라바마 의원**들을 주요 대상으로 대외 설득활동을 진행했으며, **모든 면담인사**들은 자동차 232조 조치에 대한 **반대와 우려 입장**을 표명했다.

○ 특히, **조지아·앨라바마주 의원**의 경우 자동차 232조 조치가 부과되지 않을 수 있도록 미국 **백악관, 상무부 주요 인사**들을 지속 설득해 나가겠다고 밝혔다.

< (민간) 자동차 232조 관련 대미 아웃리치 활동 내역 >

대상	면담자	일자	소속	특이 사항
정부	❶게리 타버맨 (Gary Taverman)	7.18	美 상무부 차관보	
	❷어빙 윌리암슨 (Irving Williamson)	7.18	ITC (국제무역위원회) 위원 및 내정자	
	❸에이미 카펠 (Amy Karpel)	7.18		
의회	❶트렌트 켈리 (Trent Kelly)	7.19	하원, 공화, 미시시피	
	❷드류 퍼거슨 (Drew Ferguson)	7.18	하원, 공화 조지아	기아자동차 공장 소재 주(州)
	❸마이크 켈리 (Mike Kelly)	7.18	하원, 공화 펜실베니아	
	❹테리 스웰 (Terri Sewell)	7.18	하원, 민주 앨라바마	현대자동차 공장 소재 주(州)
	❺데이빗 퍼듀 (David Perdue)	7.19	상원, 공화 조지아	기아자동차 공장 소재 주(州)
	❻더그 존스	7.19	상원, 민주	현대자동차 공장 소재 주(州)

대상	면담자	일자	소속	특이 사항
	(Doug Jones)		앨라바마	
	❼조이 아이젝슨 (Johny Isakson)	7.19	상원, 공화 조지아	기아자동차 공장 소재 州
업계	❶존 머피 (John Murphy)	7.18	美 상의 수석부회장	자동차 232조 조사에 대한 반대의견서 상무부에 제출
	❷찰스 유터스 (Charles Uthus)	7.20	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(AAPC) 부회장	美 Big3(FCA, Ford, GM) 대표단체
	❸글로리아 버키스트 (Gloria Bergquist)	7.20	자동차산업협회 (AAM) 부회장	미국시장 자동차 제조 및 판매 12개 업체 대표단체
	❹존 보젤라 (John Bozella)	7.17 7.20	글로벌오토메이커스 회장	미국시장 자동차 및 부품 제조, 판매 18개 업체 대표단체
	❺마뉴엘 만리크즈 (Manuel Manriquez)	7.21	일본자동차산업협회(JAMA) 이사	일본 14개 자동차 제조업체 대표단체
싱크탱크	❶테리 밀러 (Terry Miller)	7.19	헤리티지 재단 국제무역경제센터 소장	
	❷빅터 차 (Victor Cha)	7.20	CSIS(미국전략국제문제연구소)한국석좌	

3. 철강 232조 품목 예외인정

□ 한편,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주요 인사들을 대상으로 자동차 232조 이외에도 **철강 232조와 관련하여, 한국은 미측과 첫 번째 합의를 이룬 국가임에도 품목 예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이 문제라고 지적하며, 국가면제 국가**에 대해서도 **품목 예외를 인정해 줄 것**을 적극 요청했다.

○ 강성천 차관보도 **상무부 차관보와 면담** 계기, **한국산 철강에 대한 품목 예외 조치**가 필요함을 설명했다.

4. 향후 대응계획

□ 그간 정부는 **민관 특별팀(TF) 구성**(5.24), 백운규 산업부 장관의 대미 대외 설득활동(6.27~29), **정부의견서 제출**(6.29), **공청회 참석과 발언**(7.19) 등을 통해 미국의 자동차 **232조 조사에 적극 대응**해 왔다.

□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232조 관련 미국 상무부 보고서 발표 전까지 한국 입장이 **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속적으로 전달**되도록 **범정부적·민관 합동** 대응을 계속해 나갈 것이며 **철강 232조 품목 예외 인정**을 위해서도 **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.**

○ 특히, 의사결정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미 **행정부 핵심인사를 수시 접촉**하여 한국이 **조치대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당위성을 설명**하는 한편, **여론 조성에 기여**할 수 있는 **미 의회 및 기업 주요 인사** 대상으로도 우리 입장이 대변될 수 있도록 **전략적 아웃리치를 지속 전개**해 나갈 계획이다.

○ 이와 관련, 통상교섭본부장은 멕시코에서 개최되는 **태평양동맹 정상회의 계기 관계장관회의**에 참석한 이후 다시 미국으로 복귀, **7월 25일 ~ 27일간 2차 주요인사 설득활동**을 추진할 계획이다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조진화 사무관(☎044-203-565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